

'96년은 “방위산업 활성화 제고의 해”로 ...

—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창립 20주년 정기총회 열려

한국 방위산업 진흥회

'96정기총회가 2월 28일 육군회관에서 재적회원 83명 중 68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柳繼佑 방위산업진흥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독도 문제와 대만 해협의 긴장상황에서 볼때 한반도 주변은 예측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고 진단하고 자주국방력 확보를 위해 방위산업이 지속적으로 육성되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와 새로운 안보의식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방위산업진흥회 창립 20주년을 맞는 올해를 「방위산업 활성화 제고의 해」로 정해 어려운 경영여건을 타개하고, 연구개발을 활성화하며 선진외국과 방산기술협력을 강화하고 수출을 지원하



는 등 방위산업 재도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방산에 관한 관심 촉구와 정책 방향 모색을 위해 軍 교육기관 학생이 연구한 논문을 선발해 「'95년 방산관련 우수논문」을 시상했다.

우수작에 국방대학원 석사과정의 李洪哲 육군 소령, 가작에는 국방

대학원 안보과정의 白成觀 국방품질관리소 책임연구원과 국방참모대학의 鄭成鎬 육군 중령이 각각 수상했다. (本誌 pp.16~41 참조)

방산업체, 유공자 훈·포장 및 표창 수여

방산업체 유공자 훈·포장 및 정부 표창 수여식이 지난 3월 27일(水) 국방부 소회의실에서 있었다.

이번 방산업체 유공자 포상은 한국방위산업진흥회(회장 柳繼佑)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이를 기념하기 위해 그동안 자주국방력 건설에 헌신적으로 기여해 온 모범적인 방산업체와 종사자들을 추천하여 국방부 공적심사위원회의 훈격결정 및 확인을 거쳐 시행하게 되었다.

방산기반정착, 연구개발, 우수중소기업, 방산수출유공 등 4개 공적 부문으로 나누어 산업훈장 1개 업체, 산업포장 1개 업체, 대통령 표창 4개 업체, 국무총리 표창 4개 업체, 국방부장관 표창 9개 업체 등

총 19개 업체가 수여 받았다.

방산기반 정착 부문에서는 (주)풍산이 산업훈장과 삼성항공이 대통령 표창을 받은 것을 비롯해 총 8개 업체가 수상했고, 방산수출 유공 부문에서 대우중공업이 산업포장을 수여받았다.

연구개발 부문은 LG정밀과 대한항공이 대통령 표창을 받는 등 6개 업체가, 우수중소기업부문은 협진정밀이 대통령 표창을 받는 등 4개업체가 수상했다.

이번 훈·포장 및 표창 수여식은 침체의 늪에 빠져있는 방위산업의 활성화와 방산인의 사기를 진작하고 현재 추진중인 무기체계 개발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산 애로점 타개위한 간담회 열려 ...

소요물량 변동에 대한 제도적 안정장치 필요



정부 측 실무 관계관과 방산업체 대표들이 참석하여 업계 현안 관심사항에 대해 토의하는 '96년 1/4분기 방산간담회가 3월 8일 국방회관에서 개최되었다.

尹鍾昊 국방부 제2차관보, 安秉吉 방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62명이 참가한 이번 간담

회는 무기체계획득관리규정 개정, 방산물자조달 계약전 사전 품보제도 보완, 방산물자 원가계산제도 개선 등 주요 공지 사항의 정부측 설명에 이어 업계의 애로사항에 대한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업계측은 실발생 연장근로 시간을 원가에 인정해 줄 것과, 군에서 소요제한 물량이 합참 중기 계획에 반영되기까지 극심한 물량변동이 있어 업체의 손실이 크며 이런 현상을 사전에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고, 방산육성기금을 효율적으로 업체가 사용할 수 있게 정부의 규제를 대폭 완화해 줄 것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2차관보를 비롯한 정부측 참석자들은 시종 진지하게 업계의 의견을 경청한 후 업계의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현재 추진중인 사안과 함께 업계 애로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아시아자동차 BV 206 다목적 전술차량 생산

— 논둑, 하천, 강, 늪지에서 기동력 뛰어난 야지주행용차량

아시아 자동차(대표 金榮石)는 스웨덴 허글렌드社와 다목적 전술차량인 BV 206을 합작 생산해 한국군에 납품하는 한편 아시아 지역에 수출하기로 합의했다.

BV 206은 2개의 차체를 관절식 조향장치로 연결시켜 험지 극복능력을 극대화 시킨 야지주행용 차량이다.

차륜차량, 장갑차와 같은 궤도차량이 기동에 제한을 받는 논둑, 하천, 강, 늪지에서 뛰어난 기동성을 발휘하고, 수상에서도 자체 부상능력이 있는 수륙양용 차량이며 적설량과 무관하게 설상기동력이 탁월한 우수한 장비로 평가받고 있다.

이 차량은 4.2" 박격포를 탑재해 차상에서 사격이 가능하여 진지전환 용이, 작전반응시간 단축,

명중률향상 및 분대당 2명의 병력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군수요에 맞게 병력, 탄약수송, 방탄, 발연기 탑재, 구급차, 통신장비 및 화기를 탑재해 다양하게 운용할 수 있다.

